

보도자료

2010년 12월 7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 안근영 과장(☎710-6600)
녹색인증제도과 신금철 주무관(☎710-6622) skcgl@kcc.go.kr

전파연구소, 해상 조난통신기기 오작동 방지기술 특허 획득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(소장 임차식)는 해상 조난통신기기인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(EPIRB : Emergency Position Indicate Radio Beacon)의 오작동 방지기술과 방수시험장치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7일 밝혔다.

이 기술은 전파연구소 소속 공무원(신금철)이 개발한 직무발명으로서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오작동이 주로 마그네틱스위치가 폭풍·진동 등으로 이탈되면서 발생되고, 성능검사 시 미세균열을 통한 침수를 검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.

현재 우리나라에는 길이 24m이상 선박 약 5천 여척에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가 탑재되어 있으나 오발사율이 90%를 상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.

전파연구소는 “오작동 방지기술을 통해 폭풍우 등으로 선박이 심하게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오작동을 방지 할 수 있다. 또한, 방수시험장치가 함께 개발되어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오작동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끝.